

출하체중 100kg을 115kg으로 올리기 위한 사육기술



탁 태 영 소장
(축산기술연구소 사천지소장)

우리나라 돼지 사육현황은 지난 '85년말 251천호에서 2,853천두를 사육하였는데, 사육농가는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증가하여 '96년말 현재 33천호에서 6,516천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계속되어 2001년도에는 사육농가가 13천호로 감소되고, 사육두수는 7,300천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양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94년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수출규격돈 합격률은 50% 내외로 양돈 선진국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2001년 정부 시책 목표인 대일수출 10만톤을 달성하려면 선진 양돈기술의 조속한 보급이 요구된다.

1. 돼지사육 신기술

가. 3단계 사육관리

3단계 사육관리란 농장안에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비육사를 함께 배치하지 않고, 이유자돈사와 육성비육사를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역사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3단계 사육관리는 임신돈과 분만모돈으로부터 이유자돈에게 질병의 감염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돈사별 목표체중은 <표1>에 표시하였다.

<표1> 3단계 사육관리의 일령 및 목표체중

구 분	돈 사 명	일령(일)	목표체중(kg)
1단계	분만돈사	출생 - 이유(21일)	1.5~6.0
2단계	이유자돈사	이유 - 70일령	6.0~30
3단계	육성비육사	70일령 - 출하	30~110

나. 동시입식 동시출하

동시입식 동시출하 관리방식은 가능하면 돈사 단위로 모든 돼지를 같은주에 입식시키고, 같은주에 출하하므로 모든 돈사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차기돼지를 같은주에 입식시키는 개념인데, 비육돈의 생산성을 10~20% 향상시킬 수 있다. 농장에 따라 1주에 입식시키기가 곤란하면 2내지 3주에 걸쳐 입식시켜도 되고, 돈사단위의 동시입식 동시출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가 직접 유통되지 않는 돈사단위로 실시해도 된다.

2. 자돈관리

가. 온습도관리

돼지는 외기온도가 적온을 벗어나 높아지면 증체량이 감소하고, 30℃ 이상 고온일때는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저온의 상태가 되면 에너지대사가 많아져서 증체량 감소 및 사료요구

〈표2〉 이유자돈의 적정온도

구 분	출생~3주령	3~5주령	5~7주령	7~9주령	10주령이상
적정온도(℃)	28~33	27~33	23~29	19~26	18~25

자돈사에서는 전입일, 전입두수, 평균일령, 체중, 백신접종, 폐사두수, 사료, 전출성적 등을 세밀하게 기록 정리하도록 한다.

울이 나빠지게 된다.

성돈은 어느정도 계절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있으나, 자돈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온도관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안개분무를 하거나 물을 뿌려서 60~80%의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한다.

나. 사료급여

돼지의 이유는 3~4주령에 시작되나, 입질훈련의 성패에 따라 이유체중이 크게 달라진다. 이유시 발육에 따라 출하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분만 후 7~10일째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분만사에서 주던 사료를 1주일 정도 먹인 뒤 이유사료로 변경하여 준다. 사료는 하루에 2~4번 이상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자주 급여하고 사료를 변경할 때는 5~7일에 걸쳐 서서히 바꾸어 주어야 한다.

다. 백신접종

이유자돈사에서 백신접종은 40~60일령에 돈콜레라 또는 돈콜레라와 돈단독 혼합백신을 주사토록 하고, 농장의 질병상황이나 면역항체 수준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조정해 활용토록 한다.

라. 기록관리

경영의 개선은 기록관리로부터 시작된다. 이유

마. 자돈전출

이유자돈사에서 자돈을 육성비육사로 내보낼 때는 전출날까지 암수두수를 파악하여 미리 전출시간을 정하고, 이동시킬 육성돈사의 사료통, 니플,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전출시킨다. 전출시에는 평상시보다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몰이 관이나 몰이천으로 돼지를 모는데, 이때 돼지를 때리는 것을 삼가하여 이동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준다. 전출이 끝나면 다음 입식을 위해 돈방과 주변을 깨끗이 수세 및 소독을 해준다.

3. 육성비육돈 관리

가. 전입시 관리

육성비육돼지를 이유자돈사로부터 전입하게 되면 이동 스트레스와 새로운 돈사 및 다른 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입식 후 한나절은 물만 주고, 그 이후 사료를 조금씩 급여하되 필요시 스트레스 방지제를 사료에 첨가해 준다.

또한 어릴때 돼지를 고르게 육성시켜야지만 출하체중도 높일 수 있는데, 암퇘지와 수퇘지는 성장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암수를 분리하여 사육해야 한다.

나. 전입 후 관리

전입된 육성돈은 잠자리와 똥자리를 잡도록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양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94년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수출규격돈 합격률은 50% 내외로 양돈 선진국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2001년 정부시책 목표인 대일수출 10만톤을 달성하려면 선진 양돈 기술의 조속한 보급이 요구된다.

유도해 주고, 싸움을 막기 위해 공이나 헌타이어를 설치해 준다. 그리고 돈사내 온도관리는 전입 후 1주일 가량은 이유자돈사의 온도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 사료급여

돼지의 성장도 다른 가축과 같이 골격, 살코기, 지방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렸을 때는 주로 뼈가 성장하고, 살코기가 침착되며, 마지막에 지방이 축적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성장단계에 따라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체중 30~50kg까지는 육성돈사료(단백질 16%정도)를, 체중 50kg 이후부터는 비육돈후기사료(단백질 14%정도)를 급여하되 완전무제한급여보다는 1일에 1회이상 급여사료를 완전히 비운 다음 사료를 주는 반제한 급여 형태가 좋다.

당일에 구분하여 출하하고, 출하차량에 상차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실어서 소위 물돼지고기(PSE육)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출하순서에 있어서도 위축돈은 회복불능 판정이 되면 즉시 도태처리하고, 나머지 출하 1~2주 전에 옷자란 비육돈을 1차 선별 출하하고, 본 출하시는 1마리도 남기지 않고 전량 출하하도록 해야 한다.

4. 출하돈 관리 및 경제성 분석

가. 출하돈 관리

양돈장에 출하돈을 때리지 않고 몰아낼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몰이판이나 몰이천을 사용해 돼지를 출하토록 한다. 출하 전날 미리 체중별, 성별 출하예정돈을 표시해 두었다가 출하

나. 출하체중별 경제성 분석

돼지 출하체중별 Kg당 생산비를 살펴보면 출하체중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3). 이는 이때까지 살펴 본 사양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가능해 지리라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양돈을 시작하지 불과 3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외국의 선진 양돈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추고, 돈육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즉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출하육성을 98%이상, 출하체중 110~115kg 도 달 일령을 180~190일 이내로, 도체 A, B등급 출현율을 60%이상 목표로 설정하여 달성토록 노력해야 하겠다. **養豚**

<표3> 돼지 출하체중별 생산비 비교

구 분	출 하 체 중(Kg)		
	80	90	110
자 돈 비 (원)	31,000	31,000	31,000
사 료 비 (원)	44,646	53,550	71,946
기 타 비 용 (원)	15,630	16,802	19,342
생 산 비 (원 / Kg)	1,145	1,083	1,006